

근로자의 안전은 곧 기업의 안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영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락·낙하 등의 전통적 재래형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정부노력만으로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은 어느 한 주체를 통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정부는 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시설의 개선을 철저히 요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경험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안정한 행동을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재해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란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 근로자의 안전은 곧 기업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업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으로 안전 활동에 경주해주시다면 희망하건데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멀지 않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연



무자년 새해,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를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거센 바람에 맞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투쟁해온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우리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경제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불안정한 작업장을 척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의 새 희망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산업재해는 대부분의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그 증가 추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한 산재감소는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나 기업주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그 동안 황폐화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인프라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올해에도 임금, 고용안정 투쟁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운동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추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법 제·개정 활동을 적극 벌여 나아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별위원회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활동을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국내의 산재예방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함께 한다면 올해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들의 큰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안전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되는 한 해 되길...



안전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 안전 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문제는 한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장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도시의 문제에서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는 두 척의 배로부터 발생한 사고의 여파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장기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안 사고와 같은 문제는 우연히 발생한 일과성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과 의식이 반영된 사건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및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한해 걸러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당할 때 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가 다시 사그러지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 안전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나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없는 희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제안들이 신정부의 정책 과제로 채택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 체제 및 안전의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 대상 안전 공교육이 의무화 되어야하고, 안전교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안전 체험관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우선 주의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안전 홍보 및 일반인에 대한 안전 체험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쳐야 하고 사고유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 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전분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비 하여야 합니다.

국가 연구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분류가 신설 되어야 하며, 안전분야의 연구 기금 조성과 동시에 관련 연구소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획기적인 대처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 공무원의 직렬이 신설 되어야 하고, 적정 인력이 특채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위의 제안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안전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가 폐지되거나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부터는 온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집과 직장, 도시에서 살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 한국안전학회장

김홍

2008 January 9